

9



왜 교합채득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

잔존치가 있을 경우에 의외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합채득시 잔존치를 교합채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9-1



9-2

앞장에서의 실수와 이 증례의 실수는 똑같은 경우인데, 왜 그렇게 좌측이 낮게 재현되었는지를 자신의 머리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봐 주길 바란다.



9-3

이 케이스에 대한 검사를 일단 해 보았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상악 의치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정도의 검사를 말하는데, 만져 보았더니 상악 의치가 위치 이동하는 것을 촉지할 수 있었다. 실패를 반성하면서 연화 paraffin wax 구치부 교합법을 실시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사진처럼 wax를 가열시킨다.



9-4



9-5

9-4 Wax를 접는다. 사진은 폭이 너무 넓다. 약 7~8mm로 시작하면, 두 번 정도 접을 경우, 10mm의 정도의 폭이 될 것이다. 이것은 10mm 이상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9-6



9-7



9-8



9-9

두 개를 만들어 교합면에 올려놓는다. 여러분이 시도를 해 보고 난 뒤에 모두 하시는 말씀이 떨어져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쪽을 충분히 연화하여 붙이는 것이 좋다거나 또는 교합면을 에어로 잘 건조시키고 나서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또 한 가지는 sticky wax를 사전에 발라 두면 확실하다고 말을 해 준다.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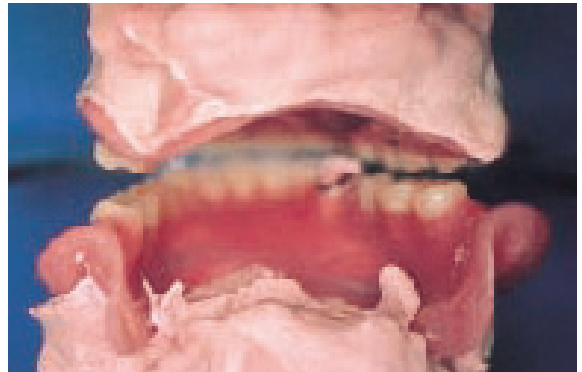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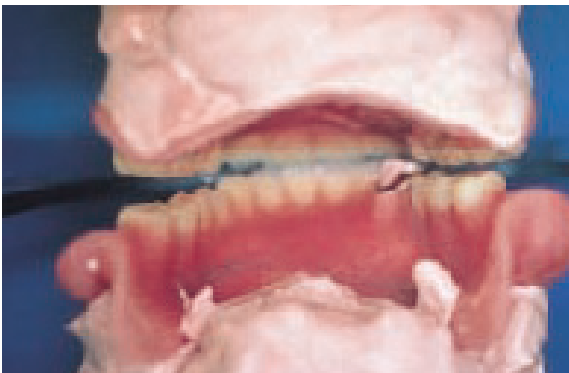
물론 하악 우측 견치의 형태를 알지 못하면 안 되므로, 인상을 채득하여 모형을 만든 뒤에 부착한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인식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마운틴 링 주변에 테이프를 감아두고, 모형을 만들 때의 잉여물을 이곳에 담아두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 버린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만들어 두면 편리하다. 안 그래도 단단한 석고이므로, 이러한 것을 만들면 편리할 것이다.



9-12



9-13



9-14



9-15

교합상태의 불균형이 엄청나다. 우측(그림 9-15)은 상하 치아의 위치관계가 어긋나 있다. 좌측(그림 9-14)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9-16



9-17

이 의치 역시 구강 내에서는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교합지를 해제시켜 보았더니 정확히 맞물리고 있었다. 레진 첨가는 애정, 용기, 정열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두렵기 때문이다. 두려운 일은 과감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18



9-19

구강 내에 장착한다. 이렇게 변화된 상태인데 전치가 맞물려 줄 것인지 염려된다.



9-20



9-21

그러나 잘 맞물리고 있다. 조정을 하여 맞물리게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신에게 맹세하지만 조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3의 처치에 관해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시켜 나간다. 기억에서 지우길 바란다. 여기서 왜 이러한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하여 검증을 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인상을 채득하여 모형을 만들었다.



9-22



9-23

교합제를 만든다. 연화된 상태에서 물도록 시킨다. 별도로 연화시키지 않아도 부드러우므로 물 수가 있다.



9-24



9-25

Bite 하였으므로 3] 부분에 압흔이 생겼다. 그림 9-25가 나의 대답을 대신해 주고 있다. 좌측이 왜 그렇게 낮게 되어 버렸나 하면, 아마도 교합체득을 할 때에 3]이 상악교합체에 빨리 닿지 않았나 생각된다. 빨리 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상악 교합체가 전복되는 것이다. 어떠한 전복이 발생하느냐 하면, 좌측의 Ah-line 쪽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떨어진 채로 물고 있었기 때문에 낮게 된 것이 아닐까? 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이런 말도 나올 듯 싶다. 그렇다면 접촉 되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바로 그것이다. 접촉되지 않는 쪽이 치료를 쉽게 해 준다.



9-26



9-27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케이스의 국소의치인데, 왜 국소의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설명하면 그 진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누른다. 그러나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반응은 없다. 좀더 힘을 주어 손가락에 피가 돌지 않을 정도로 해 보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강 내에 넣고 나서 약간의 힘을 쥐 본다. 금방 움직이며 탈락해 버린다.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임상 의 성패를 좌우한다.

의 치를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합이다. 교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일 것으로 생각한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도가 있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평적 악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멋대로란 표현을 쓰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 교합이 잘못 되면 절대 씹을 수 없다는 말을 앞부분에서 하였는데, 교합 중에서도 수평적 악위를 틀려버리면 절대 씹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수평적 악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gothic arch tracer 등이 함께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흘린 땀에 대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다.

강 연 여 담

그런 필요 없는 행위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보험 청구점수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도 않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해서 맞을 것 같지도 않은 것을 보험 청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예를 들면, 기능인상의 265 점이라는 점수도 적절하게 한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점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하면 이상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상한 보험제도가 선생님들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기능인상(교좌인상) 등에서는 교합의 완전한 보정은 불가능하다

인상을 적절하게 하여도 교합이 부적절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합을 적절하게 개선하고 나서 기능인상을 한다



10-1

기능 인상재는 뭐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tissue conditioner(송풍)라고 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재료는 기능인상시에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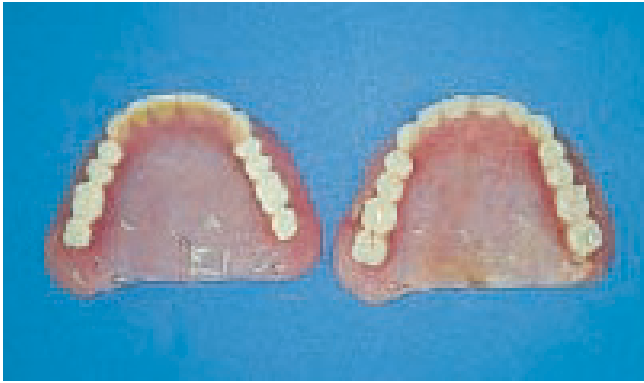


10-2



10-3

기능인상을 실시하여 새롭게 의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인상채득 상태를 보면 Ah-line 쪽이 두껍게 나와 있다.



10-4



10-5

의치가 완성되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10-6



10-7

잘 맞물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날 내원하여 별로 특별한 문제를 말하지 않았는데, 보고 있었더니 상악의 의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또 잘못 되었을까? 그러나, 기능인상을 하여, Ah-line 쪽을 메워 채웠기 때문에, 메워진 부분이 아마도 교합 보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잘 했는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흔들리는 상악 의치 앞에서 반성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10-8



10-9

연화 paraffin wax 구치부 교합법이다.



10-10
하악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10-11



10-12
Incisal pin을 약간 올리고, 약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떼어 버려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전치만이 닿게 된다.



10-13



10-14
구치가 닿고 있지 않다. 역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 신의치인데 어떻게 하지? 레진을 보충할 수도 없고, 인공치를 떼어내서 다시 재배열해 달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전치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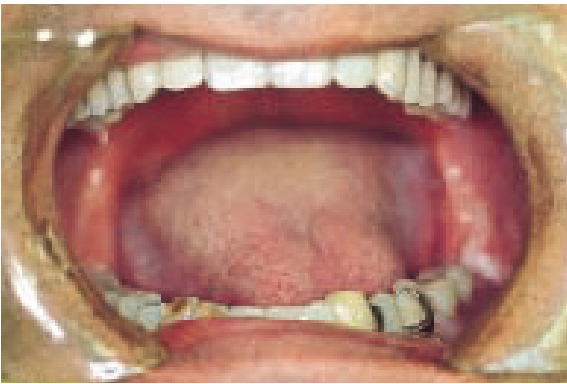


10-16

완성이다.



10-17



10-18

여기에서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구강 내에서 직접법 이장(relining)을 하였을 때에 Ah-line 쪽이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할 때마다 점점 두꺼워져서 3mm까지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교합의 보정은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 "10"이라는 오차가 이장(relining) 등에 의해 "3"만큼 보정되었다고 하자. 절대치량으로 "3"이 보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3"은 30%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8"보정이 되었다고 해서 80%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좌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교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채득할 수가 없다. 기능인상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인상이라는 것이 이런 맹점이 있다. 기능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좌인상이 세월에 따라서 변화된 기법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야자키 선생님에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야자키 선생님이 현역이셨을 때에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상재가 아마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야자키 선생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에 시간적 경과에 따라 깨물면서 형태가 변해가는 재료가 있었다면 이용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씹고 있는, 즉 여러 방향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가 짐작만 형태를 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무압이 좋으나 가압이 좋으나를 논의하기 이전에 교합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깨물었을 때에 의치가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편위되는 것이다. 편위가 된 때에 의치상 변연의 형태가 flare가 된다고나 할까? 약간 넓어지는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 보다 생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좌인상과 같이 순식간에 어느 하나의 방향에서 압력을 가한 형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관점에서는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구강 내에 끼웠을 때에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